



가상 현실은 예술적인 기호와 상징으로 가득 찬 유적 공간이다

“철학은 그동안 너무나 자폐적이었어요. 자폐의 벽을 부수기 위해서 철학은 대화를 해야 했습니다. 개인적인 고민 끝에 영화나 건축, 미술 같은 예술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공부하게 됐어요. 건축이나 미술 분야의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누었죠. 그러다보니, 그분들이 철학에 대해서 예상 외로 관심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이 철학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사이버 문화와 예술의 유혹》의 저자 이종관 교수(성균관대 철학과)는 이 책을 쓴 동기를 이와 같이 설명한다. 책의 부제가 '사이버 공간·영화·미술·건축에 대한 현상학적 사색'이라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책은 철학의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반성적 사색의 산물이다. 그에 의하면 반성과 성찰은 철학의 중요하면서도 고유한 기능이라는 것이다.

“사이버 세계는 즉시성, 즉물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세계예요. 따라서 성찰적 기능을 상실하고 사고의 단

세포화를 초래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죠. 가상현실 속에는 유의미한 담론의 징후가 참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것들이 너무도 쉽게 휘발되고 말죠. 철학은 이러한 가상현실에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는 이런 작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펼칠 생각이예요.”

그는 현상학적으로 바라보면 영화와 미술, 건축이 담고 있는 진리가 보인다고 말했다. 영화와 미술, 건축은 현상학적인 사유를 가장 명징하게 품고 있는 예술 장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독자로서는 현상학이란 어떤 철학일까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현상학이란 쉽게 얘기하면 진리가 고정화되거나 고착화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현상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원래의 현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현상이 가장 우선시 되는 진리의 준거가 되는 학문이 현상학입니다. 저는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굳어진 진리들을 의심해 보는 현상학에 끌렸어요. 그래서 전공도 현상학을 택했죠.”

이 책은 크게 보면 사이버 문화와 가상현실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담고 있는 전반부와 영화, 미술, 건축 등을 현상학적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후반부로 나뉘어져 있다. 전반부에서 그는 사이버 문화와 가상현실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양태들, 이를테면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먼의 도래 가능성을 전망하고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시와 예술의 삶을 살아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한다. 또한 가상현실이 예술이 담당하던 기능을 갖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하이데거의 이론을 들어 사이버 문화의 맹점을 집중적으로 탐문한다.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였습니다. 구체적인 계기는 장 보드리야르의 저작들을 접하면서부터죠. 그때가 인터넷이 한참 확산될 무렵이었는데,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보니, 이 사이버라는 가상현실이 실제 현실을 무섭게 대체해 들어갈 것이라는 예감이 들더군요. 가상현실은 실제현실에 비해 매우 유연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고 기호와 상징으로 가득 찬 은유적 공간이죠. 따라서 다양한 변형과 변화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가상현실이 품고 있는 궁극적인 가능성은 은유와 상징이 만발하다는 측면에서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속성 때문에 가상현실은 무한한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어요. 하이데거에 의하면 예술은 감성적 쾌감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심오한 진리현상을 보여줍니다. 저는 그것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죠. 따라서 가상현실의 예술적 가능성을 통해 새로운 진리와 새로운 세계 그리고 인간의 새로운 실존의 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데거의 어떤 관점이 사이버문화와 철학, 예술과 철학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유효한 것일까?

“하이데거 이전에는 인간과 소모품으로서의 사물이 존재했지만 하이데거는 인간과 사물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던 철학자였어요. 자신의 관점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하이데거는 예술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는 기술의 장애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술이라고 보았죠. 하이데거를 정치철학자로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는 스스로도 ‘전회’라는 표현을 쓰면서 예술로의 자신의 철학적 관심의 이동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는 IT혁명이 몰고 온 ‘사이버 경제’, ‘후반 소비자 본주의’ 시대에 모든 문화가 상품화되고 있는 현실을 현대

철학이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철학이 문화의 상품화를 경멸하거나 문화 상품을 철학적 사색의 영역에서 추방하고 문화의 상품화를 방지하면서 철학의 고상함과 품위를 유지하려는 귀족주의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다. 그는 소비자본주의 시대에 철학이 할 수 있는 역할로 ‘상품의 문화화’를 주장한다. “‘상품의 문화화’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시장의 문화화입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매겨지는데, 그런 천박한 시장의 속성을 철학이 개입해서 바꾸어보자는 것이죠. 상품과 시장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철학의 역할을 찾자는 의지가 상품의 문화화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캐주얼한 입성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는 강단에만 갇혀 있는 철학자가 아니다. 그는 매우 개방적이면서도 열려 있는 철학자다. 그가 그동안의 철학을 ‘자폐증’이라는 말로 진단하고 있는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는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남의 의견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많은 사물과 사건들을 철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그가 교류하는 사람 중에는 건축가, 미술가, 패션디자이너들이 많다. 그는 철학은 강단에서 침묵하지 말고 대화의 장에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철학의 대중화를 위해서도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철학의 대중화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1996년에 소설의 형식을 빌어 《소피아를 사랑한 스파이-소설로 읽는 현대철학》을 쓰기도 했죠. 최근에도 강연이나 강의 등을 통해서 대중들 앞에서 철학을 강의하기도 해요. 앞으로도 여러 측면에서 철학을 대중 곁으로 가깝게 가져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일 생각이예요.”

앞으로의 연구 집필 계획 역시 그는 이 책의 연장선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관심은 많지만 이 책에서 다루지 못한 게 패션이에요. 패션에는 철학적인 사유의 바탕이 매우 진하게 깔려 있거든요. 패션을 통해 드러나는 철학의 양상을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철학적 시각으로 풍경이나 도시의 모습을 재해석하고 싶은 생각도 있구요.”

그의 시도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관심 분야가 다른 철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새로운 분야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속도가 너무나 빨라 어지러운 이 시대, 철학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믿음을 그의 작업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

취재 김도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